

삼성전자, 애플과 스마트폰 정면승부

6월29일 미국 ITC에 미국수입 금지 요청 ... 특허 5건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와 애플(Apple)의 소송전이 수입금지 요청으로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6월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제품의 수입금지를 요청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전자제품의 미국 수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삼성전자의 제소 내용은 6월29일 ITC 웹사이트에 게시됐다.

삼성은 애플이 데이터 변환, 음악 데이터 저장, 터치패널 입력 등 통신표준 관련 특허 2건과 사용자 환경(UI) 특허 3건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수입금지 요청 대상은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 6개이다.

이전까지 진행된 법원 소송은 특허 권리에 대한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이 목적이었지만, ITC 제소는 수입금지를 통해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이 국제무역위원회 제소로 확대됨에 따라 양사의 갈등이 <흠집내기> 수준을 넘어 사실상 본격적인 싸움으로 확대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삼성은 애플이 주요 고객인 점을 감안해 소송 확대를 경계해왔지만 최근 소송 공방이 확대 양상을 보이자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은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애플의 갈등은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법원에 디자인 모방을 이유로 삼성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삼성도 대응해 한국, 일본, 독일, 미국에서 통신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애플에 맞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은 또 다시 6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확대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30>